

# 知彼知己 (공부법은 자신에게 가장 잘맞는 것으로)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노유경님

## 합격수기

### I. 수기작성에 앞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31회 관세사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된 노유경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제(10/15일) 있었던 합격자 발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합격수기를 작성하고 있자니, 떨리기도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합격자들이 작성하는 합격수기를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합격하면 나도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쓰려니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할지 고민스럽네요.

합격수기는 수험생활 중 슬럼프가 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자극제가 되어 주거나 또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하는 생각 등을 할 때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수험생활을 할 때 겪었던 것들을 적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합격수기에 있는 여러 공부방법을 써봤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엔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수기를 읽으시는 분들도 합격자의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만 적절히 캐치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II. 수험생활 전반(공부 방법은 III에서 기술)

### 1. 2012년 12월 말

저는 2012년 12월 말, 3학년 2학기가 종강한 이후부터 관세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3학년 2학기였던 만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취업 시 최대한 제 전공(국제통상)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사라는 직업은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으나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심사리 도전하지 못했었습니다만, 더 시간이 지나면 시도조차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작하게 됐습니다.

### 2. ~ 2013년 4월 1차 시험

저는 1차 시험과 학교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합격할 경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떨어질 경우 취업 시 나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복수전공으로 회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1차의 회계과목인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를 수강함으로써 학교 공부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회계를 복수전공으로 하거나 혹은 전공이라서 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1차 시험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수강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는 수험용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1차 과목 중 회계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1차 시험을 치른 이후 2차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기말고사를 보는 6월 말경까지는 1차가 끝난 후 계속적으로 회계를 공부해야한다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무회계는 CPA 준비생들이 기본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덕분에 4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공부했지만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3. ~2013년 9월 중순

1차 시험을 치른 후 한 달 정도는 휴식을 취했고, 5월 중순부터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과 학원과의 거리가 멀어 통학시간이 너무 아깝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 2차 과목은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했으며(1차도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

강의는 관세평가만 심화까지, 나머지 과목은 모두 기본만 수강했습니다.

제가 관세평가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까지만 수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인강은 되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필기하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 하나를 듣는데도 2~3시간씩 걸리다보니 심화, 문제풀이까지 듣다가는 제 공부시간을 확보하지 못할까봐 기본까지만 듣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또한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부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관세법, HS, 무역실무 기본, 관세평가 기본 및 심화와 대외·외환을 수강하는 데만 4개월(5월 중순~9월 중순)이 걸렸지만, 그만큼 기본 수업에서 필기를 꼼꼼히 한 덕분에 이후 혼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4. ~2013년 12월 말

9월 중순부터 강의 없이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저한테 적합한 방법이었으나, 장시간을 아무런 제어 없이 스스로 공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스톱워치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루에 공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공부가 하기 싫은 날에도 그 최소한의 할당 시간을 지키고, 공부가 잘 되는 날에는 구애 없이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정해놓은 할당 시간은 순 공부만 하는 시간으로 8시간(밥 먹거나, 잠깐 휴식 하는 시간 등 모두 제외-강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이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단 두 번 말고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대외·외환은 새끼과목이라서 2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하기 싫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저는 4개의 주요과목을 먼저 끝내놓고 대외·외환을 보자는 마음으로 12월 말까지는 4개 과목만 하루에 각각 최소 2시간 이상씩 공부했습니다. 즉, 스스로 정한 할당 시간인 8시간을 공부하되, 그날 이해가 잘 안되거나 어렵거나하는 과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12월 말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심화(단, 관세평가는 심화까지 수강) 및 문제풀이를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아 12월 말까지는 쓰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으며, 이해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HS를 제외하고는 공부 하면서 저절로 외워진 것 외에 암기 역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은 12월 말까지는 이해위주로 하되 모의고사를 보면서 암기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HS는 최대한 빨리 암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모의고사를 보는 6개월 동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시작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과목들을 암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HS도 같은 시기에 암기에 들어간다면 암기해야하는 양에 치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썰을 풀어도 점수가 나오지만, HS는 암기된 내용을 기술해야함에 따라 이를 기술하지 못할 경우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는 슬럼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또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적은 또 안 나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HS는 최대한 빨리 암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 5. ~2014년 2차 시험

1월에는 모의고사가 시작하는데, 저는 상기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 전까지는 답안지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답안 형식이나,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하는지도 굉장히 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것만 다 적자'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대로 목차를 잡고 내용을 썼습니다. 1월에는 과목당 1/8만이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암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가까워져 전 과목을 전범위로 시험을 볼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험에서 제가 받은 등수는 약 140여명 중 77등이었습니다. 아무 형식도 없이 제가 외운 것을 나열하는 수준이었고, 글씨 속도도 느려서 각 과목 6문제 중 3문제 정도밖에 못썼었기 때문에 등수가 더 낮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후 매주 모의고사를 본 이후 배부되는 답안지를 통해 답안 작성 형식을 익혔고, 암기량도 점점 많아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시간이 갈수록 성적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1/8 범위일 때에는 잘하면 30등대, 못하면 70등대에서 성적이 변동했지만, 이후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2차 시험을 보기 전 까지 잘하면 10등대, 못해도 2~30등대에서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1/8 범위 때에는 월/화/수에 1회독, 목/금에 1회독, 토에 1회독을 하면서 총 3회독을 하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이후 관세법과 무역실무가 1/2 범위, HS와 관세평가가 1/4로 범위가 늘어났을 때에는 월/화/수에 1회독, 목/금/토에 1회독으로 총 2회독을 하였으며, 전 범위가 되었을 때에는 월~토 및 일요일 모의고사 날 아침 1시간 정도에 걸쳐서 1회독을 하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모의고사 아침 1시간 동안은 주로 환특법을 봤는데, 그

시간을 월~토로 분배한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수면시간 혹은 휴식시간을 줄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일부러라도 학원에 1시간 일찍 도착하여 공부할 유인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합쳐서 총 1회독 했습니다)

가끔 어떤 수험생분들은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날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시험은 양이 꽤 되기 때문에 1회독을 위한 절대적인 최소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과목을 하루에 1회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은 건너뛰면서 본다는 것인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답안에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 과목을 하루에 1회독하면서 답안에 충실히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회독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묻는 답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면 저처럼 일주일에 걸쳐서 1회독을 하든 전날에 1회독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III. 과목별 공부법

#### 1. 1차 시험

##### (1) 관세법 및 FTA특례법

관세법 및 FTA특례법은 오OO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으며, 2차에도 관세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다독하였습니다. 1차 관세법은 특히 객관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컨대,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와 같이 사소한 차이를 열심히 체크해서 수시로 외웠고, FTA특례법과 같은 경우 각 나라별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 (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신OO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3대 협약(CISG, Incoterms, UCP600)을 중심으로 eUCP, MIA, Hague rules, Hamburg rules, MT조약 및 ICC2009 등까지 최대한 다독하며 눈에 익도록 공부했습니다. 즉, 객관식이라는 특성상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외우려 하지 않되, 눈에 익혀 틀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였습니다.

### (3) 내국소비세법

내국소비세법은 황00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1차 준비기간이 짧은 관계로 계산문제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산문제 외의 문제는 문제집을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습니다.

### (4) 회계

회계는 이00세무사님의 기본-심화-문풀을 수강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계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집중했으며, 틀린 답은 몇 번씩이고 다시 풀어보면서 문제풀이과정을 익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회계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2차 시험

### (1)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66점)

#### ① 강의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교재가 두꺼운 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의 의의, 제정 목적, 문제점 등이 잘 기술되어 있어 혼자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② 의의

제갈현근 관세사님께서 의의, 배경 등을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글씨속도가 느려서 법조문도 다 쓰지 못했었기 때문에 의의나 배경 등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답안지는 법조문만을 짚 나열한 것에 그치게 됩니다.

관세법은 물론 법과목이나, 법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땐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점자분들에게도 이 수험생이 해당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법조문만을 암기했을 때보다 그 배경 상황 등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조문 자체만으로도 암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의의 자체를 일부러 암기하지는 않았고, 계속 외독수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 ③ 법조문 암기

제 생각에는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내용은 최대한 원문과 비슷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 자체는 이미 내용이 함축되어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단어를 내 식대로 바꿔 쓰다가는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도 웬만하면 원문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고, 예컨대, 법 제97조는 재수출면세, 제98조는 재수출 감면세와 같이 조문의 번호도 함께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 ④ 법령집 vs 기본서

저는 기본서로 공부했습니다.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관세법의 체계를 잡는데 더 좋고,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파악하기에 좋다고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법령집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집은 3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기본서보다 암기하는데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져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령집이 아닌 기본서를 보는 대신,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중요성을 구분하기 위해 일일이 기본서에 법은 빨간색, 시행령은 노란색, 시행규칙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독성은 높아지는 대신 문제가 묻는 것에 대해 기본서의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해가며 중요한 부분(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 ⑤ 실제 시험

관세법은 실제 시험에서 66점을 받았습니다. 첫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손까지 덜덜 떨면서 답안을 작성했고, 1번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써서 6번 문제를 반 정도만 쓰고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채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10번 문제들은 모의고사 때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라서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 HS(63점)

### ① 강의

HS는 조현희관세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만으로도 필기한 내용이 엄청났고, 통칙, 주, 호의용어까지 외울 내용이 넘쳐나서 기본강의가 끝나자마자 무작정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견표를 통해 1부 부터 21부까지 및 1류부터 97류까지의 체계를 잡고 그 다음 주, 마지막으로 호의 용어 순으로 암기했습니다.

## ② 암기 범위 및 방법

조전희관세사님은 수업 중에 주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및 세모표를 해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외워야 할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표 및 세모표에 해당하는 주만 외웠습니다. 더불어 해당 별표 및 세모표를 한 주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의 용어를 함께 외웠습니다.

이후 상기 부분에 대한 암기가 어느 정도 끝나면 추가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를 더 암기했으며(물론 모든 주를 다 외우진 못했습니다), 호의 용어는 28, 29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호의 용어를 외울 때에는 대개 호의 용어 하나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단어 한, 두 가지만을 외우기는 했지만, 그 외의 단어들도 최대한 눈에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조전희관세사님이 수업 중에 말씀해주시는 암기식이나 84류 85류와 같이 한 류에 호의 용어가 너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암기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HS자체도 외울 양이 상당한데 암기를 위한 암기식을 따로 외우는 게 힘들었고, 또한 암기식이 너무 많아 지다보면 더 헛갈려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S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무식하게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외우다 보면 다른 류와의 체계나 관계가 서서히 보이고, 암기량이 많아 질수록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 점점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③ 상품학(해설서)

저는 상품학은 기본 수업시간에 한번 훑어본 것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HS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외워둔다고 해서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휘발성이 강하여 계속적으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HS를 외우기에도 벅차서 상품학까지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시험에는 해설서 문제가 예년에 비해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출제된 이상 해설서 문제가 내년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닥치기 전, 최대한 시간될 때 틈틈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④ 실제 시험

HS는 실제시험에서 63점을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모의고사 점수도 제일 좋았던 과목이었어서 나름 자신 있었지만, 해설서 문제가 생각 외로 꽤 출제된 바람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설서를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해설서는 별로 변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합격자의 합격수기를 읽고 목차 잡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주 번호까지 외웠었는데, 이번에 문제에서 61류 주 1,2 등과 같이 주 번호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거기서 변별력이 꽤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올해 문제가 이와 같이 출제된 이상 주 번호까지 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3) 관세평가(40.5점)

#### ① 강의

관세평가는 김00 관세사님의 기본 및 심화강의를 수강했고, 정00 관세사님의 교재를 보았으며, 모의고사는 김병수 관세사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풀었습니다. 세 분의 스타일이 모두 상이하시긴 하지만, 관세평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접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평가는 고시까지 합쳐도 외울 내용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 ② 문제 풀이

관세평가 과목 자체가 오래되지 않아서 누락된 문제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풀어봤던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봤고, 협정에 있는 문제도 너무 복잡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관세평가 경진대회 문제 같은 것은 풀어보지 않았고, 모의고사에서 계산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적으로 복습했습니다.

#### ③ 협정

관세평가는 법조문 자체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법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협정을 대부분 보았습니다. 다만, 예컨대, '권고의견 1.1은 협약에서의 판매 개념, 권고의견 2.1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와 같이 제목과 그 내용을 일일이 대응시켜서 외우진 않았으며, 답안지에 관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협정의 내용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 ④ 실제 시험

관세평가는 실제 시험에서 40.5점을 받았습니다.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가 괜찮은 편이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부족하여 6번 문제의 반 정도는 적지 못했었지만 4과목 중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4) 무역실무(50점)

##### ① 강의

무역실무는 최권수 관세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했고, 박병호 관세사님의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저는 전공이 국제통상임에도 불구하고 2차 4과목 중 무역실무를 제일 힘들어했고, 모의고사도 점수가 제일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실무 공부법에 대해서는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 다른 합격자분들의 공부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② 실제 시험

무역실무는 실제 시험에서 50점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이기도 했고 외국환거래법을 적지 못했기 때문에 과락걱정이 제일 많았던 과목이었으나, 다행히도 50점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IV. 기타

### 1. 순공부량

저는 상기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순공부량을 스탬워치 어플로 체크했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내가 무슨 과목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통계치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줘서 어떤 과목에 편중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과목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거나 공부하기 싫다는 이유로 공부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과락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다보니 스탬워치 말고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때 비행기모드를 이용했습니다. 비행기모드를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는 카톡 등 역시 되지 않지만, 스탬워치 어플만은 이용이 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탐워치를 사용해서 순공부량을 시간으로 기록한 결과 모의고사 전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소 8시간, 모의고사 시작 후에는  $\pm 10$ 시간 정도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공부시간을 체크했기 때문에 강의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물론 공부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얼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저같이 혼자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통계치를

확인함으로써 과목 당 시간을 적절히 할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슬럼프

저는 다행히도 슬럼프를 많이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모의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모의고사 진도를 따라가기 급급해서 슬럼프가 올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11월쯤(2013년) 한 번 크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들이 대학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이나, 어느 회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어서 딱히 내세울만한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친구들에 비해서 정체되고,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슬럼프가 크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 잠깐 쉬고 휴식 취하기와 계속 공부하기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 계속 공부하기를 택했었는데, 이유는 제가 설정해놓은 일정한 공부량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몸은 편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반나절을 쉬면 아예 하루가 쉬고 싶어지고, 계속적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를 제어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의 하루 정도를 쟁해서 쉬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슬럼프가 올 때마다 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서브노트 & 목차노트 & 단권화

저는 서브노트나 목차노트는 만들지 않았고 기본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서브노트에 비해 기본서가 가독성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차노트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목차노트는 학원이나 독서실로 이동 중 쉽게 기본서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 저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이동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목차노트를 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기본서로 공부했었습니다.

더불어 저도 처음에는 단권화를 시도했었는데, 기본서만 보기에 시간도 부족하여 다른 기본서를 참고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브노트, 목차노트, 단권화는 수험생분들이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것이 바로 합격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신의 공부 방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것도 무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4. 휴식

저는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휴식을 취했으나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한 때 이후부터는 시험 범위를 답안에 기술할 수 있도록 외독을 하기 위해 딱히 어느 날을 정해서 휴식을 취했다기 보다는 모의고사를 본 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이 들기 전까지만 못 봤던 TV도 보고, 잠도 평소보다 일찍 자서 피곤을 풀었습니다.

저는 특히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의고사 전에 1회독 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쉬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보는 날을 제외한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더 쉬어주었다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어쩔 수 없이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5. 모의고사 성적

앞서 적은 것처럼 제 모의고사 성적은 처음에는 중간도 안 되다가 범위가 늘어 날수록 점점 상승했습니다. 즉, 1월부터 70등대→60등대→50등대...로 서서히 올라가더니 전 범위가 되었을 때에는 10등대에서 못해도 2~30등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분들이 대개 많이들 합격하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과 합격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1월 성적이 이후 꼭 유지되서 합격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1월에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6. 스터디

제 생각에 관세평가와 같은 경우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 스터디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으나,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공부 방법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의견도 교환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 분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할 것이고, 저처럼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 분들은 스테디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7. 글씨 속도 & 필체

저는 글씨를 쓸 때 펜을 꽉 쥐고 쓰는 습관이 있어서 글씨를 오래 쓰면 손이 너무 아프고, 그만큼 속도도 나지 않아서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6문제 중 3문제 정도밖에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면 글씨를 어느 정도는 날려 써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려 써도 답안의 기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1문제를 통째로 못쓰거나 혹은 마지막 1문제의 반 정도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24주간 총 4과목의 24문제를 모두 기술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실제 2차 시험에서는 관세법 및 관세평가는 마지막 문제를 반 정도밖에 기술하지 못했고, 무역실무는 한 문제를 기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글씨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미리미리 글씨를 조금 날려 쓰더라도 큼직큼직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쓰면 약필이더라도 그나마 작게 쓰는 것보다는 알아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몇 문제 놓치더라도 다른 문제를 잘 썼다면 과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올해 시험과 같은 경우 합격 컷이 작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어느 한 과목의 과락보다는 평균이 컷에 미치지 못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것만큼 아쉬운 경우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의 약필이 아니라면 글씨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체는 너무 약필이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씨를 깔끔하게 쓰면 채점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합불 여부를 나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글씨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글씨를 좀 날려가면서 썼고, 실제 시험에서는 너무 긴장을 해서 글씨가 더 안 좋았는데도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 8. 새끼 과목(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새끼 과목은 정말 공부하기 싫지만 환특법은 10점, 대외·외환은 총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하는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 환급특례법은 관세법과

동일한 과목이라고 취급하고 9월부터 법, 시행령은 당연히, 시행규칙은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경우는 무역실무 자체가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1월에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HS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모의고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다보니 대외·외환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리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실제 시험에서 만약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환특법은 제외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반면, 대외·외환은 법을 위주로 하고, 더불어 약간의 고시를 공부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다행히도 대외무역법에서 공부한 부분이 나와서 다 적었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기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2차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무역실무가 과락이 날까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새끼 과목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시작하셔서 저처럼 합격자 발표 때까지 과락 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용이 길어졌네요. 논리 없이 너무 주절주절 쓴 것 같아 걱정되지만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노유경 드림